

시향만리

詩香萬里 제2호

연변시인협회 시총서

생명의

강물에
너

2008

연변인민출판사

연변시인협회 시총서 · 제2호

시향만리

(诗香万里)

주필: 김응준

편집: 김응룡

김학송

석 화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학송

책임교정: 최홍화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诗香万里: 第2辑: 朝鲜文 / 金应俊主编.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4

ISBN 978-7-5449-0258-8

I. 诗… II. 金…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45436号

诗香万里 (2辑)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插页: 2 印张: 10 字数: 32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258-8 (民文)

版次: 2008年4月第1版

2008年4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 례

제1부 김철시 특별조명

김철/ 기성자선시 탐(외 7수)	3
김철/ 신작시 생명의 강물에는(외 7수)	10
최미성/ 영원한 연변의 시인(문학평론)	18

제2부 고목에 꽃피는 소리

설인/ 푸른 언덕에서(외 1수)	33
금록옹/ 그리움(외 1수)	37
리상각/ 물물 피는 흰 연기(외 3수)	39
리삼월/ 사랑의 메시지(외 2수)	42
김웅준/ 오지장독(외 2수)	46
김동호/ 키스의 시간(외 1수)	49
김옥/ 다듬이소리(외 1수)	51
리선호/ 금수강산 천산만수(외 1수)	54
김운일/ 라목(외1수)	57
리복/ 더 쉬고 가라(외1수)	59
리근영/ 겨울에도 단풍잎은(외2수)	62

시향만리

황상박/ 상마당	65
김과/ 밀행(외 2수)	66
김철학/ 우리 춤 레찬(외 1수)	69
강효삼/ 연변이 연변(외 3수)	72
유천/ 쭉나무고개(외 1수)	75
함창도/ 그 이름(외 1수)	77
김영능/ 물(외 1수)	79
심정호/ 논물	81
최기자/ 시간	82
김문세/ 방천땅, 삼국계를 밟고(외 2수)	84

제3부 시인이 시인에게

김동진/ 응룡아우에게	89
김동진/ 자선시(5수)	94
김동진/ 신작시(5수)	100
김응룡/ 동진형에게	105
김응룡/ 자선시(5수)	112
김응룡/ 신작시(5수)	117

제4부 푸른 들녘의 노래

김학송/ 수석찬가(외 1수)	125
오정목/ 느낌(외 2수)	127
최화길/ 겨울라목(외 1수)	130

정호원/ 찢어진 채찍(외 1수)	132
김일량/ 가을밤(외 2수)	134
전춘식/ 빈 집(외 1수)	137
리해룡/ 봄(외 1수)	140
김선희/ 그대 가까이에서 피지 마오(외 1수)	142
박장길/ 썸바귀(외 1수)	144
윤청남/ 술값(외 2수)	150
도옥/ 죽은 나무(외 3수)	153
서정호/ 절연(絶縁)(외 1수)	158
김승중/ 화석(외 1수)	161
김창희/ 아름다운 락서(외 1수)	163
김춘희/ 봄(외 1수)	165
석문주/ 나의 동년이(외 1수)	168
정용호/ 사막과 바다(외 1수)	170
김인덕/ 그리움(외 1수)	172
지영호/ 낫설은 고향집(외 1수)	174
박명순/ 깡통의 꿈(외 1수)	175
주향숙/ 은밀한 환상(외 1수)	177
정두민/ 하루의 자화상(외 1수)	179
임은숙/ 바람의 안부(외 1수)	181
강옥설/ 단명한 사랑	184
은하/ 마음으로 읽는 시	185
최송호/ 별뿔(외 1수)	187

제5부 봄도시의 풍경 - 장춘, 길림지구 특집

남영전/ 청장고원의 소묘(시초)	191
-------------------------	-----

시향만리

전병칠/ 별 하나(외 1수)	196
리옥금/ 가을의 들국화(외 2수)	200
김설연/ 용서(외 1수)	203
리미선/ 마음 씻는 날(외 1수)	205

제6부 태평양의 메아리 - 재미동포들의 시편

박관순/ 동해바다 큰 바다에 돌섬이 둘(외 2수)	211
류봉희/ 흥시 만들기(외 2수)	215
홍인숙/ 나무에게(외 2수)	218
박동숙/ 고국, 그리움(외 2수)	221
신인호/ 관용(외 2수)	224
장석렬/ 바람앞에서(외 2수)	227
신지혜/ 밀줄	231

제7부 남해의 파도소리 - 한국시인들의 시편

박경상/ 8월,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외 1수)	235
리기영/ 눈물의 절창	237
도종환/ 꽃밭	238
조오현/ 아득한 성자	240
문창길/ 금정아 봉화야 내 딸들아	241
서지월/ 두만강변의 옥수수대(외 2수)	244
정란/ 눈의 전설(외 1수)	247
김창제/ 나사(외 1수)	249
문숙/ 갯장어	251

리운정/ 같은 배를 탄 사람들	253
정대구/ 농부와 시인	254
우이정/ 과수원(외 1수)	256
문무학/ 우체국을 지나며(외 1수)	258
김세웅/ 저녁무렵(외 1수)	260
김복희/ 11월	262
홍승우/ 그래도 오늘만은(외 1수)	263
정다정/ 새	265
박윤희/ 혼자 사는 집(외 1수)	266
김재석/ 갈대는 제 몸뚱이 흔들어	269

제8부 시와 평론

조민호/ 신작시 7수	273
김관웅/ “신조선족” 조민호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280
심예란자선시 7수	295
서지월/ 육화(肉化)된 정서의 시 - 심예란시인의 시 ...	302

편집후기

제 1 부

김철시 특별조명

김철기성자선시 10수

탑

탑은—

하늘을 찢러

피 흐르게 하고

세련된 령혼을

한점 아픔으로

달래고있다

그우에 빠알간 동화 같은 별 하나
앉아서

별쪼임을 하고있다

찢겨진 기발의

혈적을 말리며...

허수아비

논별은 만삭이 되어도

넌 늘 배고파 운다

그늘진 삶의 광야에
숙명의 느낌표 하나 세워놓고

뻗치며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의 홀로서기!

바다의 난해시

과도가 숭열숭열
난해시를 쓰고있다
갈매기가 흘림체로
그 여백에 주해를 달고있다

얕어도 얕어도 재일수 없는
그 깊이
순백한 돌고래가
미궁을 헤집고있다
인생도 수수께끼
고해(苦海)의 난해시...

외기러기

질푸른 하늘밭에
작을 잃은 외기러기
사랑이 뭐길래
저리도 슬피 우노

그리움을 먹고 사는
저 하늘의 천사는
잃어버린 사랑 찾아
노래를 물고 간다

비바람에 젖은 세상
애처로운 목소리 피를 토하며
울다가 울다가 목이 길었다...

매 미

눈물없는 울음으로
한생을 보내고
순정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준 너-

값진 네 울음
세월이 알고
몸살난 땀별으로
초록을 빚는다

너는-
사랑의 울보!

하현달

사랑하다 지쳤습니다
사랑하다 여윌었습니다
오며가며 뿌린 눈물이
저 하늘의 찬 별로 굳어지고

이제는 사랑도 끄고
망각의 저 한끝에
눈물 마른 너인의 눈섭이 되어
하직하는 서러움
허리 굽은 하-얀 시를 씁니다

아버님 가시는 길에

땀 땀 마른 아버님이
병석에 누워계신다
힘들여 걸어오신 먼먼 길
이제는 걸음도 멈추시고
통 말씀이 없으시네요
미투리 창 빠진 팔십성상
할 말이 너무도 많아
오히려 입 다무시고
천근 같은 침묵이 가슴을 찢니다
그냥 가시렵니까 아버님
물 한모금 드시고 가세요
인생의 가문 날에
건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술 병

나 잔에
정성을 부어
속까지 머무렸는데

세상은
늘
나를
버리려고만 한다

달 빛

달이 우물에 잠겼습니다
떠내도 떠내도
천년을 떠내도
달은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달처럼 이쁜것이
고향의 마음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갈증을 달래주는
샘물입니다

구역질

세상 물맛 처음 보는 새끼오리가
물속에서 들여다보는 세상은
온통 썩어빠진 오물투성이

뭔가 봄 환하고
깨끗한 곳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치며 기우뚱거리며
이리저리 헤집고 다녀보았지만
끝내는 흙탕물만 뒤집어쓰고
숨가쁜 물속을 헤쳐나와선
팩팩 악취 뿜는 항변을 한다

요 불운한 미물아
너도 벌써
썩어가는 이 세상
구역질이 나느냐...